

2025 년 12 월 글로벌 보안 전망: 중국-일본

- 중-일 양자 긴장 고조...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 이후 외교·경제·안보 전방위 대응 확대
- 중국발 일본 항공편 감축 확대와 중국 여행주의보 속 임직원 여행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현황

중-일 양국 관계는 11 월 7 일 일본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 시나리오가 일본의 '존립 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자위대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 관련 법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안전보장법제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법적 논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 정부가 정책 변경이나 군사 개입 의지를 직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며, 내정 간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중·일 4 대 정치 문건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중·일 관계의 역사적,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교·경제·안보 조치를 혼합한 잔병위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조치해 발언 철회를 요구한 뒤, 사안을 유엔으로 가져가며 외교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양국 간 계획된 문화·교류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1 월 14 일, 중국 정부는 치안·안전 우려를 이유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는 공식 통지를 발령했습니다. 홍콩 및 마카오(중국 특별행정구) 당국 또한 일본 방문 시 경계 수준을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번 외교적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죄 또는 안전사고는 양국에서 공식 보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1 월 21 일에는 일본 정부가 중국 측의 '일본 내 안전 위험 증가'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관련 범죄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역사적 기념일 전후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는 시기에는 고립적·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4 년 9 월 18 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일본인 유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1931 년 만주사변(류타오후 사건) 기념일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1 월 15 일, 일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대만 동해안에서 약 105km 거리) 인근 상공에서 정체 미상의 드론 활동이 포착되어, 일본은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대응했습니다. 이어 11 월 16 일에는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양국 간 긴장을 고조 시켰습니다.

현재 상황은 급변 가능성이 높은 '동적 위험 환경(dynamic risk environment)'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중-일 관계는 역사적 갈등과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대체로 외교·정치적 영역에서 관리되는 수준에 머무르지만, 2005 년, 2010 년, 2012 년에는 중국 내 대규모 반일 시위로 확산된 전례도 있습니다.

주요 악화 지표	평가
일본 각료의 역사 논쟁 관련 움직임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의 전후 방위 원칙이나 헌법 변경 등 수정주의적 인식을 강화하는 행동과 발언은 중국의 추가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 높음. 다카이치는 10 월 참배를 피했으나, 언론에서는 12 월 참배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어, 참배가 이루어질 경우 긴장은 더욱 악화되고, 중국의 추가 보복에 대한 높음 가능성이 있음
분쟁 영해 주변 군사 활동 증가	분쟁 해역 인근에서 군사 활동이 증가하면 지역 긴장과 관련된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양국 내 시위 발생 가능성	양국 대중 반응은 주로 온라인상에 국한되어 있으며, 중국내 관련 시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일본내 소규모 평화적 시위가 일부 발생.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행동 또는 발언이 있을 경우 양국에서 추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자국민 구금	조직은 특정 프로필의 출장자 및 해당국 근무자에게 민감 사항 및 현지 법규 요구 사항을 브리핑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황색: 일정 수준의 변화 가능성 존재, 실질적 악화 영향 미미/ 주황색: 상황의 변화 가능성 다수/ 회색: 가능성 낮음, 발생시 영향 다수

전망

현재 양국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12 월에도 중-일 간 긴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측 간 강경 발언 공방과 보복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특정 국적·프로필 관련 민감도는 증가했으나, 양국 전반의 위험 수준은 변화가 없으며, 주요 영향은 경제 및 물류 분야에 한정됩니다.

물류 측면에서는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항공편 결항 및 감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여행 자제 권고로 인해 50 만 건 이상의 여행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7 일 기준으로 중국 항공사가 12 월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일본행 노선 5 천 548 편 중 16%인 904 편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고, 중국발 일본행 정기 항공편 취소율은 21.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차이나(Air China)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지역)-중국 상하이 노선을 11 월 30 일부터 2026 년 3 월 말까지 주 21 회에서 16 회로 감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쿠오카(규슈), 나고야(도카이), 오사카, 삿포로(홋카이도)를 포함한 최소 12 개 노선이 추가로 운항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전통 매체 및 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중국과 일본 내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에서 혐오와 괴롭힘 또는 폭력 사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관리자는 특히 12 월 13 일이 1937 년 난징대학살 추모일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해당 일자는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에서의 추모행사 및 언론 집중 보도로 인해 잠재적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권고

2005 년, 2010 년, 2012 년에 발생한 사례와 같은 전국적인 긴장의 급격한 고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리자는 양국 관계의 전개 상황과 긴장 고조·완화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외교적 긴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역사·영토 분쟁 등의 구조적 요인이 인력 및 운영 리스크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일본으로의 출장 및 이동은 표준 수준의 보안수칙 하에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자는 출행자 프로필 기반 위험 평가, 일정 기반 리스크 평가, 그리고 항공 스케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사전 계획을 확보해야 합니다.

-End Report